[요약]중국, 2035를 향한 내실 다지기

새로운 기술 굴기, 금융 강국 건설

Analyst 여태경 Tk.yeo@hmsec.com

2026년 새로운 기술 굴기의 시작

-중국 제조 굴기는 중국제조2025를 통해 10년간 비약적 성장, 기존 제조강국 최종 목표 시기를 2049년에서 2035년으로 단축했다고 자평하며, 2030년 확실한 7개 산업 선도 수준 유지, 2035년까지 6개 산업 세계 선두권 진입을 목표로 2026년부터 산업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강화될 전망

-2026년 지방 양회를 통해 확인되는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은 신에너지차, 신에너지, 반도체는 발전, 피지컬AI, 양자기술, 6G 등은 중점투자

-AI산업 패권 경쟁에서는 EUV 부재로 장기적 EUV개발은 지속하는 한편 AI Chip 육성 가속화를 통한 온디바이스 AI로 데이터센터 열위 보안 전략, 중국내 AI모델 저변과 역량 확대로 AI와 특정산업을 결부한 AI+제조 정책을 본격화, 휴머노이드 로봇은 2026년 미국과 양산 경쟁 돌입

-위성 통신을 신형 디지털 인프라의 근간으로 규정, 2026년은 글로벌 위성 통신망 구축의 시작, 민간 자본 개방 확대, 중국 기업의 상업화 전환기

-자율주행 및 전고체 배터리 산업은 이미 두각을 보이는 CATL, BYD 등 민간 기업이 주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반내권'하에 전력 설비 확대 예상, 그 외 BCI, 양자 기술 등 초기 산업의 경우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공식화해 표준 체계 구축, 지방 정부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의 상업화를 지원

글로벌 사우스 영향력 확대+α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2025년 146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했고, 규모도 급증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영향력이 상승. 특히, 14.5규획(2021-2025)년 기간 동안 중국이 제시한 4개의 이니셔티브까지 더해져 중국은 수출입에서 일대일로(BRI)가입 국가 비중이 확대

-트럼프2.0이후 미국과 EU는 관세전쟁, 러·우 전쟁, 그린란드 이슈로 관계가 소원해졌고, 중국은 EU와 관개개선을 모색해 유럽 시장 수출에 긍정적

2026년 정책, 중진국 함정 탈출 모색에 집중

-중국은 World Bank 기준 중소득 국가 상위로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내부에 적재된 문제로 중진국 함정에 대해 우려. 중진국 함정에 대한 인식으로 14.5규획 기간동안 소득불균형, 산업내 핵심 경쟁력, 외부 억제 압력, 발전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

-중국 브랜드의 가치 상승, IP보호 체계 강화에도 직면한 문제는 1)낮은 출산율 고착화, 2)경제 규모 대비 금융의 후진성, 3)부정부패로 정책 효율성 저하. 고령화에 대비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위안화 국제화, 금융을 통한 리스크 방어 및 산업 지원 효율성, 부정부패 단속 강화 등의 노력을 모색

중국 경제/증시 단기 전망

-2026년 지방 양회를 통해 예상되는 2026년 중국 GDP성장률 목표는 5%수준. 다만, GDP성장률 목표 수준과 별개로 정부의 분위기는 보수적이며 양보다 질적 성장 중시. 단, 비관적이지는 않은 상황

-부동산, 소비, 물가, 제조업/비제조업 전망 관련 경제 지표는 부정적, 유동성, 환율 상황은 양호하나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예금 증가로 귀결 중

-중국 Vanke의 12월 만기채권 연장은 올해 1월 말 채권단과 연장에 합의, 보리발전 등 대형 부동산 개발상

은 조직 개편을 통해 슬림화 및 지역 개발 준비

-중국 A증시는 과거 5년 대비 P/E, P/B 모두 높은 수준이지만 과창판 성장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 있음. 과창판 AI,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등 관심이 필요. 홍콩 증시는 항셍지수, HSCEI지수 모두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지만, 디레이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산업 연계로 성장성 회복이 관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여태경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